

해피밀 시즌 3-11을 발간하며,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다짐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집회와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친히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자비로움을 느꼈습
니다. 또한 무너졌던 우리의 정체성도 회복될 수 있
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신앙의 새 힘이 솟아
나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얻은 새 힘은 섬김을 위해 주어졌습니
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함께 나고 자란 형제자매, 평생
을 약속한 배우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쏟으
시고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다음세대 자녀들입니다.

물론 각 가정은 이미 성도님들의 헌신과 열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의 가정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화목함,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
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마음 다해 위로하
고 격려하며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섬길
수 있는 새 힘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으로 가정을 섬깁시다.
다시 한 번 더 어린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한
평생 우리를 위해 수고하며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를
공경하며 섬깁시다.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막막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
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번 11호를
끝으로 우리는 전도서를 비롯한 지혜서를 모두 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채
웠습니다. 혹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염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혜가 필요한 자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
다. 그렇게 주님의 힘과 지혜로 다시 한번 가정을 섬기
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5년 4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Paul Jung

23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24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25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 마음은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람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다 27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날날이 살피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 내 마음이 계속 찾아 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9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완벽주의와의 작별**

<완벽주의에 작별을 고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회복을 돕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지적 수준과 성품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든지, 우리 집은 늘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든지, 남들의 눈에는 지나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업무 완성을 추구한다든지 말입니다. 이러한 성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계획대로 하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높은 잣대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향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상 자기 생각만 고집하며 완벽주의를 추구할 때 문제가 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해 쉽게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등 교만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봅시다. 만약에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실을 남들 앞에서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서 기자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가리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자기만의 정의, 자기만의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26절을 통해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비유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에게 붙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정체는 “우매함”입니다. 그리고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반드시 우매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둔함을 깨닫게 하고 죄에서 건져줄 진정한 지혜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우상이나 완벽주의적인 계획, 태도도 줄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작고 부패한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붙들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여러분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발생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Q. 나의 완벽주의보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것을 확신하며 지혜와 겸손함을 구합니다.

1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2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3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4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5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입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7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8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절대 권력과 순종

17세기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짐은 국가다(L’État, c’est moi).**” 이는 프랑스의 절대왕정 시대를 상징하는 무척 유명한 말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며 사치스럽게 살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사후에 프랑스는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절대왕권은 형장의 이슬과 함께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한 방식으로 백성의 삶을 짓밟는 권력은 반드시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절대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권력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보는 타락한 권력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복종하되, 그가 하나님께 반대되는 행동이나 정책을 펼 때는 겸손하고 지혜롭게 거부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 앞에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실까요? 세상 부귀영화보다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권력보다는 주님께 더욱 충성하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나요? 아니면 지키고 싶은 것만 부분적으로 지키면서, 원하지 않는 명령은 거부하셨나요? 주님을 망각한 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시며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폭군이 아닙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보다 높은 사람의 명령이나 말에 선한 이유와 악한 이유로 불순종했던 경험이 있나요?

Q.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불순종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10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2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나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신자의 독특성

얼마 전 한 중년 앵커가 뉴스 클로징 멘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매년 똑같은 문제를 보도한 후에, 다시 똑같은 해결책을 보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세상의 불의함은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악을 행하고도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들로 인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다고도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결과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악행을 통해 더욱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악인에 대한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진정함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자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복락에 빠앗기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과 전혀 다른 독특한 생명력과 빛을 뿜어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완악함을 이해하거나 함께하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선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에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있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신자는 악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일으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선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상급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도 차마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의를 구해본 적이 있나요?

Q. 내가 경험했던 이해할 수 없던 은혜를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믿음을 간구합시다.

14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5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찰나의 순간이라도**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인의 선행이 의인에게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악인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 의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의인이 억울하게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이러한 세상의 불의를 다시금 폭로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불의로 가득한 곳으로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에피쿠로스적 쾌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의식주와 같은 것만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만 같은 찰나의 순간에도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강력합니다. 어찌나 힘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지 아무리 부조리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결코 낙관주의적 사고가 아닙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은 늘 보이지 않는 미래에서만 소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소망만 바라보며,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고도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도 없고, 부조리도 없고, 죄와 핍박, 아픔과 고난, 슬픔과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재림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미래의 상급과 지금의 좋은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찰나의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분의 선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낙관주의적 사고와 복음적 사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지난 3일 동안 주셨던 매일의 은혜들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16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하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거울 속의 나와 사진 속의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긴 걸까?” “내 눈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왜 사진으로 보면 엉망진창인 걸까?” 물론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과학적으로 다르게 생긴 이유가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각도나 렌즈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진짜 우리의 얼굴일까요?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진으로 보는 얼굴일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인식론적 한계를 자주 경험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느끼고, 상부의 지시 속에서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인식론적 한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기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은 결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 말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한 가지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행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궁극적인 선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도 모든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확신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지혜자이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삶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겪었던 것도 좋습니다!)

Q.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분의 손에 문제를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1. 전도서 7장 23-29절을 필사해봅시다. (청소년, 청년용)

23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24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25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 마음은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7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알이 살피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 내 마음이 계속 찾아 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9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2. 자녀들과 함께 아래의 질문들을 나눠봅시다.

- 1)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좋은 걸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나요?
- 2) 완벽주의적인 사람과 함께 살 때 힘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3)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힘들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 4) 여러분이 의지해야 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완벽한 나 자신인가요, 아이돌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3.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어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대표자의 대표기도로 마무리)

1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2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4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5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6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진정한 특별함**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무분별히 모든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한 현대인의 사고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매우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반'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일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특별하지 않은 것입니다.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일반적인 결과'가 선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지 않는 자나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죽음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죽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개하는 전도자의 논리는 제법 우울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 지각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과 미움 시기를 느끼는 것이 나은 것은 죽음 이후에는 그러한 것을 도무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우울감과 허망함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참 일반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특별함'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특별하다 말하며, 우리에게 진정 특별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일반적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특별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며, 고초와 은혜로 다져진 구원의 길입니다. 이 특별한 구원의 길을 걷는 자는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저주 앞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기쁨에 참여한 자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내가 가장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일반적인 나의 삶에 찾아온 특별한 사랑되신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려봅시다.

7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10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세월을 아끼라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우리의 운명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매우 귀하게 여기게 한다는 것이며, 살아있을 때 유의미한 것을 찾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시간'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과학이 죽음을 정복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우리의 삶이 제법 길 것이라고 여기게 만듦에 오늘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이러한 심도 있는 철학하기를 멈추게 하고 잠시 잠깐 주어지는 값싼 쾌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버리는 향락주의적인 문화가 시간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삶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조는 매우 간곡합니다. 7절 말씀에는 제발 삶을 즐기라고 말하며,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말해줍니다. 8절 말씀에 흰옷과 향기름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축제를 떠오르게 합니다. 9절에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곡한 권면 끝에 그는 10절에서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도 없으니, '제발'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불확실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확정된 결과 앞에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아직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구약성경에서는 천국과 영생의 구원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 말씀에 '스올'의 특징을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인한 영생의 복락을 아는 자들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자들에게도 전도자와 동일하게 "세월을 아끼라(엡 5:16)"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죽으니 시간을 아끼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생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지금도 그분의 생명 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오늘의 영생복락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는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Q.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영생복락'은 어떤 것인가요?

11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
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2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나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하나님의 띠를 띠고**

젊었을 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자면 참 오만했음을 많이 느낍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바라는 것에 도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며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젊어
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
라(요 21:28)"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이 도무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러한 인생의 진리를 말합니다. 달리가 빠르다고 해서 항상 1등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다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합리적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매개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
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작용과 반작용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사도바울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원하
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6)"
하나님은 걱정하신 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걱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을 장자 삼으셨습니다. 그제 하
남의 걱정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
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띠 띠워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걱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작
정하신 바 이 땅에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을 위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작정하
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띠 띠우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어지고 계신가요?

Q. 오늘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13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14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홍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6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7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18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가난한 지혜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작은 성읍을 큰 군대가 에워쌌는데,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유용하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강력한 무기, 재원, 사람보다도 작은 지혜 하나가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더욱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결국 이러한 지혜도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16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지혜자 또한 잊혀지고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전도자는 9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인간의 '일반적인 결과' 즉 죽음 앞에 한 성읍을 구원한 지혜자도 결국 잊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도 이기지 못한 놀라운 지혜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자로 오셔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저 옛날 가난한 지혜자는 작은 성읍 하나를 구원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첫째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많은 선이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의'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 모든 만국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이름'으로 남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탈굴에서 오늘 본문을 '의인화'하여 흥미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마음에, 악한 영이 에워쌌습니다. 이때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영과 전쟁을 벌이는 선하지만 겸손한 정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진정한 지혜자 예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은 악한 세상 속에 휩싸여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되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현재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이 있나요?

Q. 수 많은 전쟁 중에 우리의 지혜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타계하여 봅시다.

1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2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3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4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 받게 하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미련함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지혜의 연약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비유는 좀 더 생동감 있게 지혜와 미련함의 전쟁을 상상하게 합니다. 지혜와 미련의 전쟁에서 지혜는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보잘것 없이 작은 파리 몇 마리가 향기름이라는 아주 귀하고 좋은 가치를 악취로 타락시킵니다. 이와 같이 우매한 것이 우리가 보존하는 지혜와 존귀를 매우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보존과 보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수한 사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낡아가고 녹슬어 갑니다. 그러나 잘 관리한 것은 세월이 지나도 나름대로 그 가치를 보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맛있게 만든 밥에 작은 젓가루가 뿌려지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작은 미련함과 그 결정이 인생을 나락으로 치닫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아름다운 것을 잘 보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 받지만, 그는 이내 이집트로 도망가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려 합니다. 모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바로의 왕자가 되지만, 한 번의 폭력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쌓아 올린 귀한 가치들이 우리들의 작은 실수, 안일함 마음, 나태한 태도, 지식의 결핍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어가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악취를 하나님께서는 향취로 바꾸십니다. 사도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전치사 '~의'라는 소유격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우매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입니다. 나의 약함 그때에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삶에 보존하지 못한 가치가 있나요?

Q. 나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향기롭게 고백해보세요.

2025년 5월 3일(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전도서 10장>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전도서 10장,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오늘은 전도서 10장 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BINGO! 빙고타임! 전도서 10장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를 골라 3x3 빙고를 완성해보세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내 마음의 한 자리

1. 5월 2일 해피밀을 읽고 가정에서 나눌 말씀을 준비해주세요.
2. 최근에 했던 실수는 어떤 것 있습니까? 그 실수로 인해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요?
3. 나의 실수도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4. 부모님께서 기도문을 준비하셔서 가정예배 후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5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6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인 5-7절에선 우매자로 인해 뒤집힌 세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지혜자도 있고, 우매한 자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선 우매한 자가 부른 재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솔로몬은 해 아래 재난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그 재난은 바로 우매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입니다. 이것은 죄를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주권자로 세울 시 그는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질서를 지킬 줄 알며, 조직을 위해서 충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지혜롭고 책임을 다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세워 어리석은 지도자, 우매한 주권자가 권력을 잡을 시 모든 것은 거꾸로 돌아가거나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6-7절 말씀을 보면 상식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미국사회를 보면 PC주의가 사회에 퍼지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권자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기준이 피부색, 인종, 성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우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이유로 사람을 세우다 보면 정작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배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모습과, 부모가 둘 다 여성, 혹은 둘 다 남성이 되는 모습, 남녀가 공용 화장실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모습 등, 이러한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매한 자가 통치를 하고 권력을 잡을 시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혜자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우매한 자들을 경계하며,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요즘 우리 주변에선 어떠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마치 상식적인 것처럼 일어나고 있습니까?

Q.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로 충만하여 비상식적인 것들과 상식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멀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지지 않도록 소망합니다.

8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यो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यो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보이지 않는 손길**

오늘 본문에선 솔로몬이 살펴봤던 우매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중에 두 가지 특징은 바로 함정을 파는 자들과 담을 허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함정을 판다는 것은 악한 의도로 남을 해하고자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관찰한 결과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매자의 특징은 바로 남을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만 결국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역사하셔서 남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로 준비된 함정들에 자기 자신이 해를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담이란 밭이나 집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진 벽입니다. 이러한 담은 돌로 세워졌으며, 그 돌 틈 사이마다 뱀이 살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담을 허는 사람은 바로 담 너머에 있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탐심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담을 헐다가 뱀에게 물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란 우매자와 반대로 남을 해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함정을 파지 않는 자이며, 남의 것을 탐해서 담을 헐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적어도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뱀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돌들을 떠내는 자들과 나무를 쪼개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두 채석장이나 벌목장 같은 위험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기 쉬운 자들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꼭 안전수칙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생애에 수많은 위험한 공사현장에서 건축을 지도했습니다. 즉, 솔로몬이 공사현장을 둘러보니 돌을 찍고, 쪼개고, 나무를 벌목하는 현장 가운데 우매한 자들은 교만하거나 안이하다 보니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하다 다친다는 것입니다.

채석장이나 벌목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우리 신앙의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일한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악인의 꾀로부터 구원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해봅시다.

Q. 오늘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타협화 시키기 위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0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11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시기적절한 충성

오늘 본문 10절에선 철 연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식칼이나 낫과 같이 철 연장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 연장의 날이 무디어질 경우 썰거나 자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솔로몬이 본 우매자들의 모습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날을 갈지 않습니다(10절). 날이 세워져 있지 않을 경우 일의 수고는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매자들은 평소에 미리 날을 세워놓지 않으며, 삶에 있어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란 평소에 미리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보시고 준비된 자들을 가장 알맞을 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1절을 보면 술객이란 바로 피리를 불어 뱀 묘기를 보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술객이 아무리 대단한 주술을 연습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피리를 불기도 전에 뱀에게 물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혜가 있고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시기와 기회를 놓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청년의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놓칠 경우 우리에겐 다시는 그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마음에 감동이 임했을 때, 그 때를 놓쳐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Q.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달란트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후회함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2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13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14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오 15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음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하나님의 법**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다고 말하면서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고 말합니다(12절). 삼킨다란 ‘없애다, 파괴하다, 먹어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혜자의 말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생명을 주고 은혜를 공급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타인과 자신을 피곤케 하며 패망케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매한 자는 지혜로운 자보다 지식적으로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각이 그릇되거나 잘못된 자들입니다. 즉 우매자는 말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말은 지혜롭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시편 37:30-31). 그러므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의 말은 지혜롭고, 그의 말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반면 우매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말에는 생명이 없고, 이들의 말에는 파괴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아무리 많은 말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합니다(14-15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12:37) 우리는 훗날 우리가 내뱉은 말로 인하여 의롭다 함과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말할 수 있고,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는 우매한자가 되어 우리가 말하는 말은 다 허망 되고 다른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해서 우리 입에서 내뱉는 모든 것이 은혜롭고 지혜롭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평상시에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봅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성경적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Q. 나의 입술로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말하되 사랑과 은혜가 담긴 권면으로 그 말들이 상대방에서 전달되어질 소망합니다.

16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17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18 게으른즉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19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20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말은 바 충성을 다하여**

오늘 본문에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왕의 정신은 미숙하며 대신들은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향락을 즐기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지붕인 서까래가 등장합니다. 이 서까래는 금방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지붕이었기에 지속적인 보수가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즉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18절)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러 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어리석고 대신들이 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할 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고전 4:2)

20절 말씀을 보면 심중은 마음 속이며 침실은 가장 은밀한 곳,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않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밀한 곳에서도 왕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은밀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세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한 말이라 할지라도 잘못해서 권세자들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롬 13:1).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를 향하여 불편과 불만을 내놓는 것은 이 권력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저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 해를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은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Q. 게으르고 향락을 즐기는 것에만 몰두하는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받는 자가 아닌 멀리하는 경각심이 우리 안에 깨어 있길 소망합니다.

2025년 5월 10일(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전도서 10장> 색칠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전도서 10장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세요!



1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나 3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 풍세를 살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5 바람의 길이 어둡함과 아이 뺨 자의 태에서 빠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나 7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8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던져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기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부르심 가운데에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존심, 사회적 평판, 인기, 편리함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운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운택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당장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당합니다. 멀리 있는 지옥, 영원한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두려움이 훨씬 커 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던진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 날 후’라는 말이 우리에겐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연해 보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날도, 좋지 못한 날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떡을 물에 던진다고 해서 인생이 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떡을 던지다고 해서 인생이 더 나아질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거나, 제단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던지라, 도로 찾으리라’는 말은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평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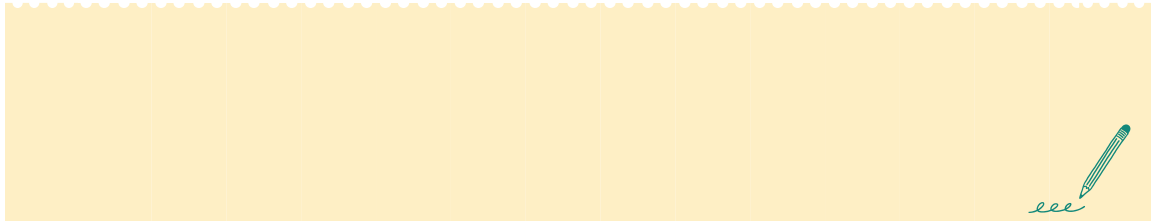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Q. 부르심으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있나요? 나눠봅시다.

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종말론적 삶**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이라는 의미의 ‘올로(yolo)’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예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현재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언젠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 중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의 때만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곳저곳에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시간만 헛되지 않습니다. 유년기도 헛되고, 청년기도 헛되고, 장년기도, 노년기도 모두 헛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음으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다 헛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헛됨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와 같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리신가요?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점이나 타로 등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Q.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3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4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5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6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기 전, 어떤 사람들은 “나중 가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 즐길 것 다 즐기고 노년에 교회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어 드립니다. 오늘 한숨을 쉬면서, 한 걸음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께 영광드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모든 시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찬란했던 인생의 빛을 사그라들고, 생기가 넘치던 육체는 점점 메마르고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청년기보다 더 젊은 시절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이 주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며, 긴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또한 주님의 기억해 주심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청년의 때처럼 찬란하게 빛어주시길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 Q. 가장 찬란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요?
- Q. 가장 침울했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요?

9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2 내 아들이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필터**

필터란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정수기, 렌즈, 자동차, 비행기, 공장 등 필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필터가 없으면 이물질이 걸러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부속품들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사회를 찬찬히 보면 필터가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아무 여과 없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누구나 손쉽게 통용합니다. 문제는 지식들이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 결과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진리를 진리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믿고, 믿는 바를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라는 필터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진리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여전히 백성들을 위하여 지식을 연구하고, 만들고, 가르쳤습니다. 11절에 기록한 대로 ‘한 목자가 주신 바’에 집중하여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채찍과 같습니다.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참 진리가 우리를 어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 진리는 ‘잘 박힌 못’과도 같습니다. 잘 박힌 못은 아무리 힘을 줘도 뺄 수가 없습니다. 단단히 박혀서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수많은 지식과 이념, 철학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들로부터 집어삼켜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 가운데 잘 박힌 못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올바른 이해와 삶의 실천을 위해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필터로서 악한 것들을 여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믿으며, 성경대로 살기를 기뻐하시나요?

Q.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해집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 교회의 전통, 분위기를 의지했을 때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목적**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성공인가요? 인정인가요? 건강인가요?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목적들 하나, 하나 이뤄감으로써 큰 목적에 도달하고자 부단히 애씁니다. 결국은 큰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장 큰 목적이 돈에 있다면, 그보다 작은 목적들은 가장 큰 목적인 돈을 향한 중간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제시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된 목적을 둔다면 제이, 제삼의 목적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의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따라갈 때 피조물인 사람은 살아갈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마지막에 와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결국 돌아보니 하나님 밖에서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인생도, 시간도, 열심도, 일도, 사람관계도 헛되구나.'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참된 본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전도서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헛되지 않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 더욱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Q.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의 목적과 비교해 봅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전도서 12장> 먹기

-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 3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 4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 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 5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 6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 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 8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 9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 10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 11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 12 내 아들이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